

# 순천만 '스카이큐브' 운행 중단 위기

### 입장료 통합발권 놓고 이견 속 운영사 "누적 적자 200억원" 순천시에 운영 협약 해지 통보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를 오가는 무인케노더차(스카이큐브)가 운영 적자로 중단 위기에 놓였다.

6일 순천시에 따르면 스카이큐브 운영사인 에코트랜스는 지난 1월 순천시에 운영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스카이큐브는 지난 2011년 순천시의 투자 유치 요청을 받아들여 포스코가 670억원을 투자해 2014년 5월 운영을 시작했다. 또 30년간 운행한 뒤 순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업체 측은 당초 국가정원 입장객 500만~600만명 중 적어도 100만명이 탑승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이용객은 매년 30만명 안팎에 그치고 있다. 첫째 55억원 적자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가 2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났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를 오가는 무인케노더차(스카이큐브)가 적자로 운행 중단 위기에 놓였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협약서에는 스카이큐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순천만 습지 주차장을 없애고, 이용료를 입장료에 포함해 통합 발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적자가 발생하면 순천시가 투자비용부담금을 지원해주게 돼 있다.

반면 순천시는 입장료 통합발권이 공정거래법상 위반의 소지가 있는 등 협약서 내용이 문제 있다고 보고 에코트랜스 측에 공문을 보내 협약서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에코트랜스는 순천시가 협약서의 의무

조항을 먼저 이행했어야 하며 순천시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스카이큐브 운영을 정리하기 위해 지난 2017년 6월부터 순천시에 기부채납할 뜻을 밝혔다.

순천시 관계자는 "스카이큐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지는 취지로 운영사에 협약서 수정을 협의해 왔다"며 "기부채납 여부는 시민의 의사를 물어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에코트랜스 관계자는 "몇 년간 운영을 해보니 계속 적자가 발생해 순천시가 제안한 협약서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며 "순천시가 협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대한중재상사원에 중재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순천시와 민간투자협약을 맺은 포스코는 610억원을 들여 순천만정원에서 순천문학관까지 4.62km 구간을 운행하는 국내 최초의 소형무인케노더차(PRT·Personal Rapid Transit)를 2014년 4월부터 운행하고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시 인월동 대룡정수장.

## 순천시 수돗물 공급 체계적·과학적 관리 55억원 투입 '스마트워터시티' 사업 추진

순천시는 수돗물 공급의 전 과정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5억원을 들여 '스마트워터시티' 사업을 추진한다.

6일 순천시에 따르면 '스마트워터시티(SWC) 사업'은 취수원에서부터 정수장, 급배수관,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의 모든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상수도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사업을 착수해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모든 사업이 마 2무리되는 2022년까지 총 5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정수장에서는 응집·소독 등 정수생산의 모든 공정을 감사·제어하고, 급배수관에서는 관망 블록화

체계를 구축해 수량과 수압, 수질, 누수 상황을 원격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수질정보를 전광판 등을 통해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6월에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현재는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이어 올해 하반기 사업이 착수되면 올해 안에 가정에 공급되는 수질 상태가 전 광판 등에 실시간으로 표출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과학기술을 도입해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 '순천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출품작 내달 10~12일 접수

순천시는 다음달 10일부터 3일간 지역의 전통과 역사, 문화 등 순천 고유의 특징을 알릴 수 있는 '2019 순천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출품작을 접수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업체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분야는 순천의 다양한 관광 자원과 콘텐츠를 소재로 순천의 특색을 잘 나타내고 계속 생산이 가능한 완성된 관광기념품이다.

수상작은 4월18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홈페이지나 순천시청 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

입상자에게는 대상(1명) 500만원, 금상(1점) 300만원, 은상(1점) 250만원, 동상(2점) 각 200만원, 장려상(3점) 각 100만원, 입선(4점) 각 5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입상작은 4월22일부터 4일간 특별 전시전을 열어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순천시 대표 관광기념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순천=박선천 기자 psc@kwangju.co.kr

## 순천 방문의 해 맞아 주요 관광지 입장료 500~1000원 인하

순천시는 '2019 순천 방문의 해'를 맞아 순천만국가정원 등 주요관광지의 입장료를 500~1000원 내린다.

순천만국가정원은 8000원에서 7000원으로 할인되며 낙안읍성은 4000원에서 3000원으로 할인된다.

드라마촬영장도 3000원에서 1000원 할인되며 송광사나 선암사도 500원에서 1000원 내린 가격에 입장할 수 있다.

입장료 할인은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순천시는 올해를 '순천방문의 해'로 정하고 단체 관광객 유치와 구석구석 순천 여행모니터단 운영, 순천여행공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순천지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선암사와 송광사, 순천만 습지, 순천만국가정원 등 다양한 역사·문화, 생태자연자원을 보유한 대표 생태관광도시로 지난해 800만명이 다녀갔다.

/순천=박선천 기자 psc@



## 낙안읍성 낙민루 북소리 들으러 오세요

### 3월부터 '경점시보 의식' 실시 국악대전 등 문화행사도 풍성

국경일 등 공휴일과 매주 주말 정오에 낙안읍성 낙민루에서 북소리(사진)가 울려 퍼진다.

순천시는 '2019년 순천방문의 해'를 맞아 낙안읍성에서 '경점시보 의식'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3·1운동 100주년 기념일을 시작으로 공휴일과 매주 주말 정오에 낙안읍성 낙민루에서 북을 친다.

경점시보 의식은 조선시대 성곽이 있는 곳에서 북과 징을 쳐서 시간을 알리는 의식으로 일반적으로 범종을 이용하지만, 낙안읍성에서는 낙민고의 북소리를 이용해서 진행한다.

낙안읍성은 연중 가야금 병창을 비롯한 기능인 상설체험장 9개소와 짚풀공예 등 전통생활 재현 체험프로그램 13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어 언제든지 풍성한 우리의 전통을 체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4월에는 전국 국악대전, 5월에는 전국가야금병창 경연대회, 10월 낙안민속문화축제 등 굵직한 문화행사와

연간 150회에 이르는 상설공연이 준비되고 있어 남도 관광의 핵심코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낙안읍성 관계자는 "경점시보 의식과 같은 낙안읍성만의 특색 있는 관광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광객들의 볼거리를 늘리고 낙안읍성 역사적 가치를 높여나가겠다"며 "2022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낙안읍성 '낙민고'는 지름 180cm, 길이 185cm로 순천 신일기업 김성신 선생이 1998년에 기증한 북으로 제작 당시에는 서울올림픽 공원에 있는 북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북이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선로 걱정없는  
엘리형 태양발전소

선착순  
분양

'최소 25년 이상'  
마르지않게 정성들인 노후 연금식  
엘리형 태양광발전소

태양광 100Kw	동식물재배사 위탁, 영농(임대)
년 4,000만원 이상 수익가능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자기자본 투자금 대비  
년 40% 수익 기대

2019년 8월~10월 준공예정

현금 투자금 회수기간  
▶ 최단 2년 6개월 가능

계약금 1천만원  
선착순 50개소 접수 중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